

#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TV 등에서 다양한 봉축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올해 봉축방송은 최근 탁났한 스님의 방한 열풍 때 문인지 국내외 스님들의 수행과 대 사회활동을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불교관련 영화는 그동안 방영됐던 것들을 재 편성해 아쉬움을 남긴다.

## 공중파·케이블TV, 봉축프로 다양

눈에 띄는 다큐 프로그램은 KBS 1TV의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과 MBC TV의 '탁났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등이다. KBS 1TV가 준비한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8일 밤 10:00~11:00)'에서는 1997년 서울대 출신으로 동시에 출가한 세 명의 스님을 찾아가 이들이 수행자의 삶을 택한 동기와 출가 후의 생활을 조명한다.

까지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25분간 방영한다. 또 8일 오후 12시 20분부터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공연을, 오후 2시 25분에는 지난해 달라이 라마가 주관한 칼라차크라 법회를 다뤘던 다큐 형식으로 재구성해 방송한다.

또한 케이블 채널인 중앙방송 Q채널에서는 '세계로 간 부처(8일 오전 9시)'와 '베스트 다큐멘터리-큰 스승 달라이라마(8일 오후 5시)'를 준

## 다큐 '탁났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MBC TV

## 어린이 '만화 삼국유사' 6일간 방영 불교 TV

MBC TV는 8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특집 다큐멘터리 '탁났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을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지난 4월 방한한 탁났한 스님의 활동모습과 스님이 이끄는 프랑스의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의 생활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불교TV는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삼국유사'를 5일부터 10일

비했고, 중앙방송의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티베트의 혼, 달라이라마(8일 오전 9시)'를 방영한다.

한편 11일 오전 6시부터 방송되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만공·한암·성철 스님 등 한국 고승 20명의 전언을 복한 만수대장작사가 손자수로 형상화한 '아! 큰스님' 전시회를 화면에 담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눈길 세 스님의 출가동기·삶 조명 KBS 1TV



◇서울대 출신의 세 스님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KBS 1TV의 '선객,...'이 봉축 특집으로 8일 방송된다.

### ★ 방송프로그램 ★

방송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TV	7~10일(07:40~08:20) 7일(16:50~18:25) 8일(12:30~14:20) 8일(14:25~16:25) 10일(12:20~14:20) 8일(11:00~12:00)	만화 삼국유사 도올 김용욱 특강 특집공연 야단법석 칼라차크라 1, 2부 한강연등제 1, 2부 일요스페셜-법정, 산에서 그를 만나다(재)	〈삼국유사〉에 나오는 불교관련 설화를 만화로 꾸몄다. 도올 김용욱 씨가 '동북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불교'를 주제로 한 강의 녹화방송. 목탁, 목어, 발우 등을 이용한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공연. 2002년 달라이 라마가 주관한 칼라차크라 법회 소개. 6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불교TV문화원 주최 한강연등제 행사 방송. 강원도 화천민촌에서 은둔 수행하는 법정 스님의 모습을 3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았다.
KBS 1TV	8일(22:00~23:00) 8일(10:00~11:00)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 봉축법요식 심황중계	서울대 출신 스님 3명의 구도의 길과 가르침을 들여보는 시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 심황중계.
KBS 2TV	11일(06:00~07:00)	뿌리 깊은 나무	복한 만수대장작사가 손자수로 형상화한 고승 전영 20점을 전시한 '아! 큰스님' 전 조명.
KBS 위성	8일(09:00~10:00)	니르바나 실내악단 공연 녹화중계	4월 24일 KBS홀에서 열린 니르바나 실내악단 제6회 정기연주회 녹화방송.
MBC	8일(10:00~) 8일(19:00~20:20)	봉축법요식 심황중계 탁났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 심황중계. 탁났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이끄는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의 생활 소개.
경인방송 (ITV)	8일(12:00~)	특선영화 우담바라	소설 '우담바라'를 원작으로 깨달음을 향해 경진하는 치열한 구도 과정을 그린 영화.
EBS	8일(12:00~)	특선영화 사명당	사명당 유정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원ول방송	7~9일(16:05~17:00)	부처님 오신날 경축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들려준다.
케이블 중앙방송 Q채널	8일(09:00~10:00)	세계로 간 부처	부처의 가르침이 서구 사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케이블 중앙방송 히스토리 채널	8일(09:00)	티베트의 혼,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라마의 삶을 조명한다.

## 니르바나 실내악단 연주 보고



## 장사익씨 무대 열광의 도가니 교성곡 '부처님이야기'서 절정

4월 24일 KBS홀에서 열렸던 '제 6회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기 연주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오프닝 때와 곡 연주 사이마다 나가서 음악회의 취지와 연주될 곡을 소개하고는 줄곧 무대 위에서 귀를 쫓아 들었다. 불교계의 유일한 클래식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의 반주에 맞춰 사물놀이팀인 '한울림'이 들려준 협주곡 '마당'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강은 일씨의 해금 협연으로 연주된 '열'을 들으면서 원인모를 한(恨)과 흥이 교차됐다. 짧은 휴식 뒤에 이은 무대는 열광의 도가니였다. 온 몸으로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씨는 무대와 청중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장씨 특유의 가슴속에서 끌어올려 내질러 대는 풍만 한 가창력은 관객들의 끝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왈츠로 열기를 식힌 뒤 연주했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성곡 '부처님 이야

기'는 이번 음악회의 클라이막스였다. 부처님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진구씨가 관현악 편성으로 편곡을 했다. 하지만 국악관현악단의 곡을 관현악으로 편성해서인지 합창부분이 약해져 가사의 전달력이 다소 떨어진 것이 속의 티로 남았다. 물론 연주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곡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합창과 오케스트라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화음을 만들어 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연주자와 관객들이 모두 다 성숙해 있었다. 특히 객석에서 보내는 아낌없는 박수 소리는 좋은 연주를 이끌게 해 주는데 큰 몫을 했다. 연주회장을 빠져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을 뜻조이 인내하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강행진 단장에게 마음속으로 많은 박수를 보냈다.

〈진명스님·BBS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김용욱씨의 '구선동설화'

## 김용욱씨 도예 초대전 20일까지 불일미술관

작품은 작가의 성격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20일까지 열린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용욱 도예초대전'에서 만나는 김씨의 작품들은 더욱 작가 특유의 특박이 짙은 친근감이 느껴진다.

작품 대부분이 흙과 현대적인 유약이 버무려져 탄생했다. 특히 유약은

## 가볼만한 전시회

굵은 소금을 사용했다. 도자기에 직접 바르는 것이 아니라 초벌구이 후 1200도에서 15분 간격으로 가마에 7회 정도 뿌린다. 이런 과정을 거친 완성품들이 가마밖으로 나오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다. 투박하지만 오히려 정겹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선동설화'를 비롯해 분청사기, 자기 등 작품과 생활용품 5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황아리모양의 도자기 '구선동설화'는 삼간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지 만들어 이채롭다. 또 분청사기는 투명 유약을 발라 구워 속살까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02)733-5322.

## 조형전 '선으로 가는길' 작품마다 불교내음 물씬

원정 차대완씨의 조형전 '선(禪)'으



◇차대완 작 '스님의 뒷모습'.

로 가는길'이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7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연주를 든 스님의 뒷모습, 짙은 한쪽 오목이 걸린 아득히 높은 솟대, 목탁, 연꽃,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등이 소박하고 꾸밈없이 빛어져 있다. (02)724-2236.



◇보광선원장법인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지도하고 있다.

## 내 밥그릇 내손으로 빚어요

### 대불청, '만해 도자문화체험' 행사

"내 밥그릇은 내가 만들어서 쓸 거 예요."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이천 길은도자문화학교(교장 이상덕) 작업장.

부모와 자녀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천연 염색을 하며 가족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욱)가 개최한 '만해 도자문화 체험' 행사는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맞춰 바쁜 직장인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도자기 제작 방법 배우기. 강의는 도자기 전문 제작자인 문병식(31)·이용인(32) 씨가 맡았다. 설명에 따라 바라영(11), 총렬이(13) 남매가 따라 해 본다. 적당량의 진흙 반죽을 떼내어 입자를 고르게 하고 찰흙 가락을 만든

다. "어,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뱀 꼬리네." 라영이가 슬그머니 장난을 친다. 눈을 흘기지만 총렬이도 즐겁기만 하다.

다음은 물레로 도자기를 만드는 순서. "반드시 만들기 전에 무얼 만들 것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이용인 씨가 물레로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지도한다.

나생 처음 물레 앞에 서는 문금옥(5)씨는 속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모처럼 진흙을 만지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

여수=강유신기자 사진=박재원기자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가족을 부처님처럼...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조실 승산 행원 주지 성광

##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902-2663

100년 큰그릇

# 100

2006년 5월 8일, 개교 100주년-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 지 100년!

21세기는 불교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동국대학교로 이어집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서정대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